



##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알찬 내실기업 우미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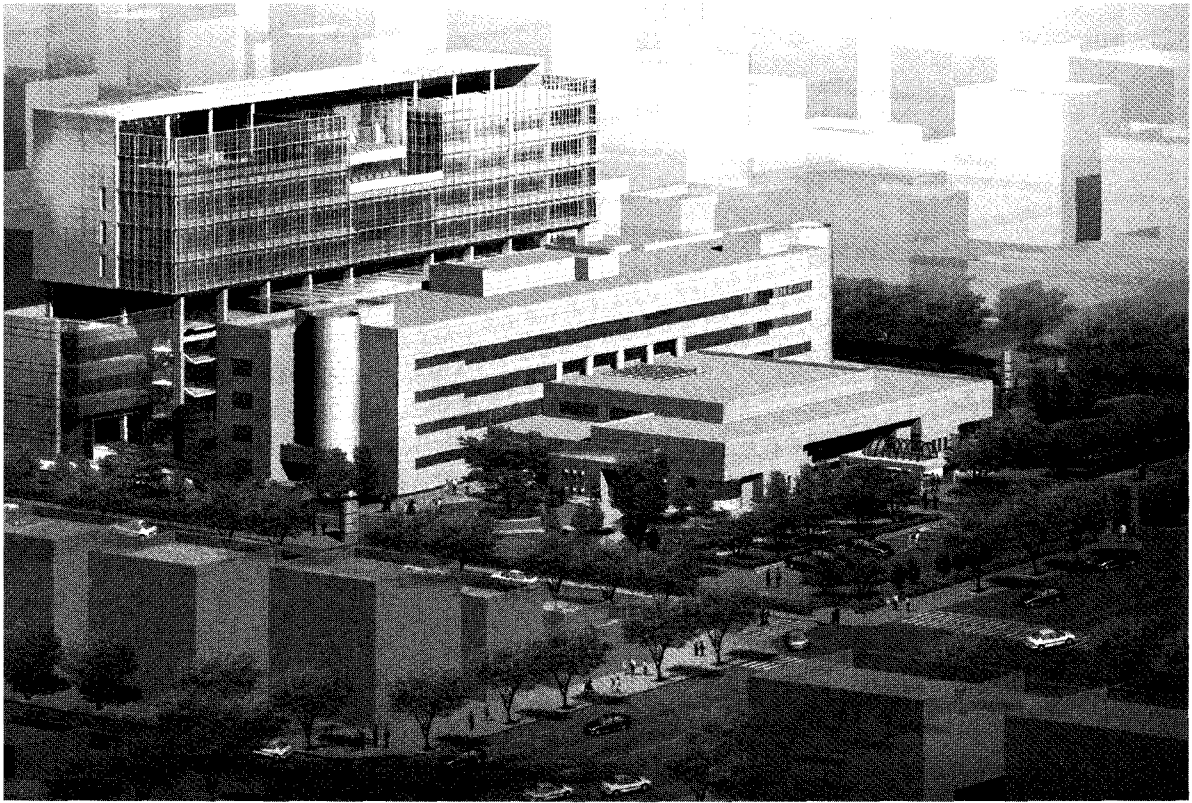
**우**미건설(주)는 1991년 설립된 이래 '살수  
록 정이 드는집'이라는 경영이념을 바  
탕으로 성실히 주택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내실있  
는 중견건설업체이다.

우미건설(주)는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외형을 키우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  
고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인력양성 통해 지속적으  
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까지 2만여세대를 꾸준히  
공급해 오고 있다.

기업의 정도를 걸어왔음을 자부하는 이석준 대

표이사는 매년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전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새로  
운 비전을 제시하여, 임·직원이 회사를 신뢰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게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경영과 열린경영, 재무관리를 바탕  
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을 관리해온 결과 2003년  
경상이익률 20.1%를 달성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64.7%를 기록하였다. 특히 부채비율은 56.2%  
로서 이는 건설업체로서는 가히 놀랄만한 수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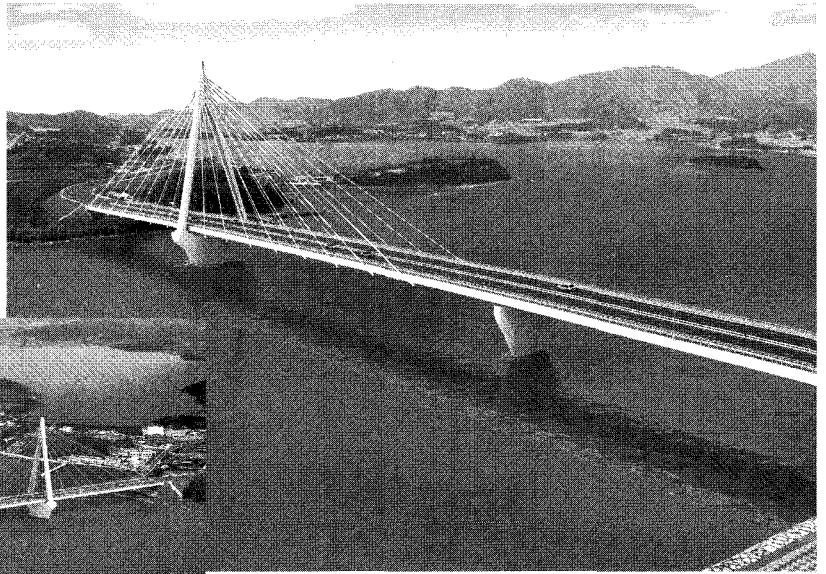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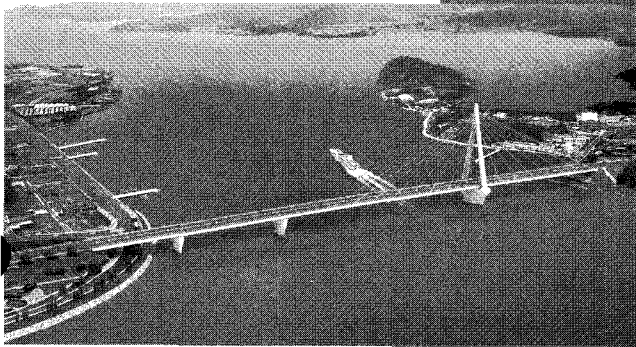
### 입주 후 더욱 인정 받는 아파트

우미건설(주)가 추구하는 아파트 가치는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거공간 창출'이다 화려한 외형으로 눈길을 끌기보단 합리적인 분양가와 실용성을 추구해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이 때문에 주차공간 및 아파트 내부공간 확대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계, 단지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기술개발실과 상품개발실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미건설(주)의 이석준 대표이사는 '아파트는 카페가 아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이 당장 분양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핵심은 품질에 있다'는 소신이다. 이러한 결과 실제 2001년 아파트 분양시 소형아파트의 경우 법적 주차공간이 세대당 0.7대였으나 이보다 높은 1대를 책정,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입주가 시작되는 요즘 입주자

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매경 주최 살기좋은 아파트 2회 입상, 한국경제 주최 주거문화대상 우량중견기업 부문 수상 등 각종 평가기관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협력업체와의 뛰어난 파트너쉽

우미건설(주)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사대금 결제일을 넘기지 않았다. 더욱이 올 들어서는 우미건설(주)가 스스로 어음 결제일을 60일로 앞당겨 주면서 협력업체의 자금회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협력업체를 하청업체가 아닌 파트너로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우미건설(주)의 협력업체 대부분은 우미 공사는 절대 자금이 막히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10년이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쉽은 원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기업성장의 밑거름인 인재상

정도경영과 더불어 최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우미건설(주)는 21세기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선 수동적이고, 현실안주적인 수재보다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다음은 우미건설(주)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다.

첫째, 적극적 사고.

사람은 새로운 것에 서면 항상 머뭇거리곤 한다. 하지만 고인물이 이내 씹어버리듯 변화를 두려워 때부터 그는 이미 낡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도 핵심을 보존하면서도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우미건설(주)는 성장의 씨앗인 적극적이면서도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소중히 여긴다.

둘째, 능동적 패기.

성장하는 조직은 그 구성원이 뿜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능동적 패기란 꿈을 향해 구성원들의 소망과 의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압

도하는 것이다. 고객 만족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자세로 어떠한 일이라도 이뤄 내려는 힘찬 기백, 바로 그것이 우미건설(주)의 패기이다.

셋째, 꾸준한 노력.

아무리 좋은 생각과 행동이라고 중단 없는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연유가 그 꾸준함에 있듯이, 목표의 성취를 굳게 믿고 열의를 다해 실천하는 것이 우미 구성원들의 의지이다.

###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주택경기 침체기일수록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좋은 품질은 소비자에게 선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우미건설(주)는 이를 기회로 삼아 올해엔 전년에 대비해 1천세대 가량을 더 늘리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튼튼한 재무구조와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1세기 주거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우미건설(주)의 야심찬 포부이며,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미건설(주)의 임·직원은 그 꿈의 주인인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